

## 수도권과 차별화·지역 특색 살려야 지방소멸 위기 돌파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 〈8〉 차별화·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광역단체들이 앞다퉀 대기업과 미래 특화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여전히 수도권과의 격차는 큰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고용 인원은 한정적인 데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인제 채용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진다.

특히 KTX 등 대중교통의 발달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이동 시간이 짧아지는 점도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고, 지방만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최근 광주와 전남이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미래자동차, 우주발사체·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주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실력있고 유능한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시대 특색 있는 도시 만들어야 유현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자 홍익대학교 교수인 유현준 교수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선 각 지방들이 특색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에 새로운 도시를 많이 만들었으나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KTX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시간 거리가 단축돼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지 않고 '나홀로' 이주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역시 주말이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통근버스와 KTX를 이용해 집이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그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도권과 다른 차별화된 공간'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원도 양양의 예를 들었다. 양양은 현재 서평의 메카가 됐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를 통해 서울 사람들은 주말이면 양양을 간다. 서울에서 돈을 벌며 주말 양양에서 소비하는 셈이다.

유 교수는 "지방으로 경제적 부분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공공기관 이전·분산만으로 한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지역의 미래 주력산업 개발해야

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판이하게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도시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향인 충남 예산상설시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도 눈여겨 볼만 하다. 실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거둔 성과로, 지방소멸의 한 해법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박진석 (주)한국창업컨설팅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결국 일자리와 즐길 수 있는 여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외부의 방문이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숙박과 외식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대·중소기업 격차 줄여야 지방소멸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 양극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전남의 전체 기업 수는 45만 9276개로, 이중 중소기업은 99.92%인 45만 8898개에 달한다. 대기업은 고작 0.08% 수준인 378개에 불과하다.

종사자 수도 총 111만 1162명으로 102만 7161명(92.44%)이 중소기업 근로자다. 대기업 근로자는 8만 4001명(7.56%)이다. 광주·전남의 일자리 100개 중 90개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해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66만원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은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고용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이뤄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훈 경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일자리 미스매칭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여야 지방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얼마 만이나...광주·전남 '단비' 오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전남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분주히 걷고 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80mm가 내릴 전망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함평·순천 산불 ... 축구장 875개 면적 태웠다

### '3단계' 대형산불 잇따라 발생 산불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함평과 순천에서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의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전남의 산림면적은 늘지 않는 가운데 매년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면적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정오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주불길이 잡혔다. 28시간여만에 불길이 잡힌 것이다.

전날 오후 1시40분께 순천시 송광면의 야산에서 난 불도 2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10분께 진화됐다.

두 곳 이외에도 4일 오전 10시 50분께 보성군 천면 전일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에 진화됐고, 오후 2시 30분께는 함평군 손불면에서도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진화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시설물을 태우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대피한 채로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들 동안 함평에서 475ha, 순천에서 150ha 등 총 625ha(5.32km<sup>2</sup>)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구장(0.714ha) 875개 면적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문제는 광주·전남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산불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광주의 산림면적은 1만 8941ha에서 2020년 1만 8944ha으로 늘었다가 2021년에는 1만 8938ha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산림면적도 같은 기간 68만 6789ha → 68만 6852ha → 68만 6384ha로 매년 줄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산불(2018년 42건, 2019년 39건, 2020년 38건, 2021년 33건, 2022년 59건)은 매해 40~5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4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총 47건에 달해 연간 최다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불로 인한 광주·전남 피해 면적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었다. 2018년 6.76ha에 달했던 산불 피해 면적은 13.03ha(2019년) → 8.38ha(2020년) → 18.08ha(2021년) 정도 였다가 지난해 62.85ha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1일까지 벌써 81.73ha의 임야가 불타 없어졌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2050년까지 5억 그루를 심는 것을 목표로 전남도는 계속해서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면서 "매해 1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지만 임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3 청산도 슬로시티축제

##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

2023년 4월 8일(토) ~ 5월 7일(일)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슬로시티축제추진위원회

2023 완도  
장항수산물축제

##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

2023. 5.4(목) ~ 5.7(일)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장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